

방송 단신

BBS, 성철스님 특집
「가야산은 옛처럼...」등

성철 스님 열반 1주기(24일)를 맞아 불교방송은 17일부터 24일까지 다양한 특집방송을 마련했다.

17일부터 7일간 방송된 「다시들은 백일법문」은 27년 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법문을 육성 그대로 생생하게 전했다.

24일에는 「가야산은 옛처럼 서있네」를 해인사 백련암에서 일주일에 걸쳐 봉영되는 참회법회(남을 위해 기도함)의 현장을 취재 소개하면서 스님의 상좌와 재가불자들의 성철스님에 대한 회고를 들었다.

이어서 조선일보 문화부장 서희건,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은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공종원씨의 3명의 언론인들이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현실속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논의했다. 오후 6시20분부터는 지난 7일 조계사에서 열린 「성철대선사의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를 녹음방송했다.

BBS 국악무대 공개방송

불교방송 특집프로그램 「라디오 국악무대」 공개방송이 오는 31일 북한청우극장(765-4282)에서 열린다.

부다가야
대각사



해외통신

월우/부다가야고려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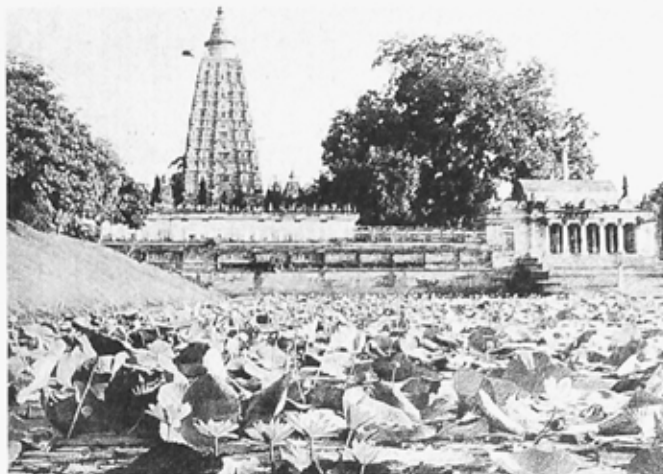
최근 인도에서는 부다가야 대각사의 운영권을 불교에게 돌려 달라는 요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처님의 성도지인 부다가야에 서기 2백80년에 들른 아쇼카왕이 참배한 이래 중요한 성지가 된 이곳은 지금도 순례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대각사 건물(탑)은 서기 2세기경에 지어졌으며 그안에 모셔진 불상은 서기 3백80년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각사는 현장법사가 서기 6백년에 참배한 바 있다. 그는 「보드가야 대탑은 높이가 백육십십칠척이며 그 주위에 아십일척의 탑이 있다」고 기록했다.

명멸히 불교의 성지로 순례객들의 신앙심을 증강시키는 부다가야의 대각사는 인도 지역에서 불교가 쇠퇴되면서 힌두교 사제들이 장악해 오고 있

“운영권 불교도에 넘겨달라”

운영법 힌두측에 유리·법개정 마땅



인도부다가야 대각사. 운영권 되찾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못가쪽 활짝핀 연꽃은 이교도들의 횡포에 시달려온 대각사의 역사를 아랑곳 하지 않는 듯 하다.

다. 16세기 중엽에 힌두의 손으로 들어간 대각사는 그때부터 비불교 의식마저 집착되는 곳으로 전락했는데 1900년 고세인 사제에서 1861년 춘남감에 이르기까지는 그 정도가 매우 극심했다.

1875년에는 미얀마의 왕 민단 민이 인도 정부로부터 허물어져 가는 대각사의 보수 허가를 얻어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의 마무리는 인도 정부의 책임 아래 이뤄질 수 있었다. 당시 복구원 상태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원 후에도 여전히 대각사는 힌두 사제들이 관리했다.

최근 일고 있는 대각사 운영권 불교인 회복운동과 관련된 사안이나 라슈미 스님이 「왜 불교도들은 보드가야 대각사 관리를 바꾸려 하는가」라는 글을 발표해 주목 받고 있다.

라슈미 스님은 이 글에서 대각사의 역사와 힌두 사제들의 관리상 부도덕성 그리고 다른 마찰리의 운영권 반환 요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라슈미 스님의 글에 의하면 다르야말

라는 1891년 대각사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사람으로 그는 힌두 사제들로부터 폭행도 수차례 당해가며 운영권 되찾기 운동을 벌였다. 1906년 힌두사제들은 인근 미얀마에서 불교 승려를 찾아 내리는 소송을 제기했고 불교승려들로 대각사는 운영권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

송을 제기 했는데 그 법정싸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도 독립 직후인 1949년 비하르 주정부는 부다가야사원 운영법을 제정했으며 위원은 8명을 두었다. 그중 4명은 힌두 사제이고 4명은 불교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다가야 세무 장관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이

운영법에는 언제나 힌두 사제가 유리하도록 된 특별조항이 있어 불교도의 운영권 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 순례객과 여행자의 주머니에 의존해 살고 있는 부다가야. 부처님 성도의 땅이 힌두교도의 손에서 불교도들에게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

社 告

회귀·결판본 제출간 동참안내

불서보급의 공덕, 여시아문이 함께 합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회귀·결판본 불교서적류 발굴해 저술간 작업을 펼칩니다. 가치 있는 불서, 그러나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불자들을 위해 펼치는 불서 재출간 사업에는 회귀본, 결판본 불서를 소장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의 서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전해져야 할 값진 불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출간 대상 도서: 회귀본이나 결판되어 유통되지 않는 불서
접수기간: 수시
연락처: 종로구 경자동 110-33번지 도서출판 여시아문
(문의: 737-8891)

주부 신행담 모집

감동의 신앙체험 독자들과 나눕시다

신앙체험담, 기행, 일기, 기도영험담등을 모집합니다. 주부님들이 신행 현장에서 겪은 감동적인 체험담을 보내주시면 16면 주부신행담에 실어드립니다. 원고대수는 제한이 없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낼곳: 종로구 경자동 110-33번지 현대불교사
주부신행담 담당자 (문의: 722-4162)

주부 모니터 모집

정법 포교의 피수꾼이 될 주부님을 모집합니다

기사 정보 여론제공 '현대불교의 가정기자'

현대불교를 읽으시면서 느끼는 소감이나 주위의 의견 그리고 각종 정보와 여론을 수집해 보내주실 주부모니터에 주부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격: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하신 주부님
구비서류: 자기이력서 1통(명함만사신 2매), 주민등록 초본 1통
선발: 서류전형후 개별통지
마감: 1994년 11월 30일
보내실곳: 종로구 경자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주부모니터 담당자 (문의: 722-4162)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호부에게 온정의 손길을”
이건자씨 돕기 김기원교수등 나서

보기도문 호부로 알려진 이 건자보살(경남 진주시 신안동 거주)을 돕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불심이 풍부한 이 건자보살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 80세 노모를 봉양하고 4남매를 키우고자 온갖 고생을 할다가 병세가 악화돼 지난 달 20일 경향대 병원에 입원, 전진결과 심정지상태로 인종 단을 받았다.

이웃주인의 도움으로 어떻게 양심장관막을 인공심장으로 바꾸었으나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기까지 드는 많은 경비를 감당할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어 교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로심장회등을 통해 자비함을 펼쳐는 진주신안대 김기원교수는 호부 이 건자씨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교계가 양심장관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 051)758-6611)

성태용 교수특강
24일 대불연 총동문회

대불연 총동문회(회장·명호근)는 동문의 날 모임을 24일 오후 7시 삼일선원법당에서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성태용 건국대교수의 「한국불교의 개혁 그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한 특강이 마련된다. 이어 기수별 지회별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동체대비 정신구현에 앞장 다짐

정덕일씨, 제주 천사재활원 태고종에 기증

제주도 모슬포 소재 사회복지법인 천사재활원 제3대 정덕일이사장 취임식 및 지역주민위안법회가 지난 18일 모슬포 대정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서봉 태고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태고종 종단간부 스님 10여명과 제주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박서봉 총무원장스님은 축하사를 통해 「이처럼 훌륭한 이사장을 새로 모시게 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천사재활원 가족 여러분은 각자 슬기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사회의 공익이 되어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덕일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천사재활원을 인수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재입기간 동안 원생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종단설계에 「초석」 18일, 해동특위 활동보고

이날 발표된 해동특위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해동형위자로 집계받은 사람은 총 58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에서 위원장 영담스님은 「해동특위는 반개혁적 반불교적 반사회적 세력을 없애고 개혁을 하고 사람개화를 통해 미래종단 설계에 초석을 삼는 것과 동시에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직기간 동안에 시행된 파행적인 인사처리와 재산의 불법처분 등을 중심으로 조사 파악 그 책임자를 경책했다」고 말했다.

생명존중 정토사상 실현의지 다져
15회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제15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정토정총본산 지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류대회에는 한국측에서 박서봉 태고종 학원장은 비롯 1백60여명이 참가했으며 총재 은교수(동국대)가 「불교에서 본 생명존중과 공존의식」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일본

측에서는 산젠(山正)국제일본문화센터 소장이 「일본인의 정토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추기 강공회 실시
대한불교 추기강공회(총무원장 지광)의 정기 48년도 추기 강공회가 지난 18,19일 양일간 총인원에서 실시됐다.

우리의 1만원이면 3백여명의 르란드 어린이가 끼니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말에 불자들의 동심이 끓을 있고 있는 것이다.

정실같은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자비의 집(대표 풍광)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

우물안 벗어난 이타행

우물안 벗어난 이타행... 이경숙 (취재부 차장)

동자들의 따뜻한 입터가 되어주고 있다. 이들에게 수제법회를 받게 하고, 재물된 일금을 받아주는 등 권익 옹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자비의 집은 특히 불교국가인 네팔, 스리랑카 등에서 노동자들이 토요일이면 들려 고

불자들의 자비함이 우물안을 벗어났다. 사회봉사나 복지에 타종교보다 소극적이라는 평을 들은 불교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가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때워 빛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다소 긴 이름의 봉사단체가 있다. 이들은 실시일만 성공을 모아 저 멀리 인도 고아원을 돕고 있다. 우리 돈 1만원이면 인도 고아 1명이 한달간 먹고 입고 공부까지 시킬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이흥재(서울 가림구 화곡동)가 주선해 조직한 봉사회로 안 입는 옷을 모아 인도 인들에게 나눠주고, 보다 근본적인 추인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공을 모아 향토 공경까지 세워주었다.

한국불교시민상담실(실장 김재일)은 기존과 질병으로 수만의 아사자를 내고있는 르란드 난민들에게 나서고 있다. 상담실이 마련한 르란드 난민들기 기금마련 구좌에는 시민상담실 회원뿐 아니라 뜻 있는 불자들의 성금이 꾸준히 달리고 있다. 이 역시



목탁소리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 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맥방지 매트
현대인의 질병 큰 원인은 수맥의 왜에서 오는 것을 아십니까
옛 우리 선조들은 집터나 묘터를 고를때 지관을 불러 수맥을 살피 명당을 찾았습다.
•수맥(水脈)의 기원?
지하에 흐르는 중력수(重力水)를 말하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풍물질이 모여 자기양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초고층상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엄청난 피해를 줌.
•수맥(水脈)의 기원? 기를 방지하지 않으면
•누워갈 경우 혈압이 높은 분은 90%이상 중풍이 올
•활동할때는 땀과도 잠자리에 누우면 머리가 아프고 불면증이 올
•항상 몸이 무겁고 두통 신경성 불쾌감 신경통 또는 몸이 붓습다.
•전단결과 병명은 나타나지 않고 몸은 항상 피로우며 의욕이 상실됨
•임신부는 태에 나쁜 영향을 수혈생은 정신질환이 안됨
수맥방지-알파매트는 일반적으로 안고있는 자석이나 돌침대와는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지구내(地球內)에 환관처럼 뻗어 있는 중력수맥(重力水脈)에서 발생하는 지자력(地磁力)과 지전류(地電流)를 차단하여 줌으로써 병(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인체(人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VIP GOLD매트 W850,000
발명특허권 제2273호 Gold 카펫 W765,000
□ 제조허가번호 3-7-190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번호 권 3-7-5663
遠赤外線 線狀發熱體使用
敏永營業
서울 (02)208-7974-5
부산 (051)317-5155